

Pierre Brunel

프랑스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프랑스 문화강좌 주임교수로 재직 중. 주요저서로는 *Le mythe d'Electre* (1971), *Le myth de la Métamorphose* (1974), *L'évocation des mots et la descente aux enfers*(1975), *La critique littéraire* (1976), *Arthur Rimbaud ou l'éclatant désastre*(1983), *Rimbaud, projets et réalisations*(1983), *Une saison en enfer*(1987) 외 다수가 있다.

랭보와 동양의 유희

빠에르 브뤼넬

동양을 규정한다는 것, 특히 지리학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시집 『동방의 詩 Les Orientales』에서 빅토르 위고의 동양이 스페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랭보의 작품 속에 산재되어 있는 암시에 따르면, 그의 동양이란 「감 Promontoire」의 일본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Métropolitain」에 나오는 다마스쿠스나 사마리아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양은 하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랭보의 본질적인 극성 polarité 중의 하나는 바로 동양을 향하고 있다..

동양은, 사실 19C 시인들과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 동양적인 신기루일 뿐이다. 동양학의 대가인 앙리 마스페로 Henri Maspéro는 이 점에 대해 1952년에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초현실주의자들이 동양에 매료되었던 시기다.)

각자의 기질에 따라, 어떤 이는 영향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이는 그 영향을 회구하는 이 동양은 대부분 -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지만 - 고립적으로 선택되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 함부로 확산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몇몇 원칙과 다소간 정확한 몇가지 관찰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정신이라는, 감미롭지만 잘못된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완전히 서양적인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¹⁾

(1) 『Les Cahiers du mois』 n° 9-10, 1925, p.295

우리는 이 환상이 아주 일찍부터 랭보의 상상 속에서 형성되는 것과 또한 그가 이 환상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이미지는 우리가 도처에서 지적할 수 있는 몇몇 동양적인 이미지보다도 더 엄숙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 랭보는 동양을 동경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동양으로 갔다. 말하자면, 그는 동양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20세 무렵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 詩를 포기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며, 나는 이제 그 꿈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나는 우선 하나의 연속성을 세우고, 랭보가 결국은 동양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모든 전조가 동양, 특히 그의 작품 속에 있기 때문이다.

1875년 이후, 랭보는 베를렌이 ‘신발밑창에 바람들어간 사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 랭보의 친구들은, 때로는 흑인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도 70도선 아래에서’ 흰곰과 술마시는 탐험가의 모습으로 그를 묘사한다. 첫번째 이미지만을 기억해두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메넬릭 뒤 코아 Ménélik du Choa 왕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가 하라르 Harrar에 있을 때 아프리카인 랭보는 그를 상대로 무기 밀매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나는 세명의 동방박사 가운데 흑인이었던 한 사람을 또한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의 성서적인 일화를 암시해주는 일이 랭보에게 한번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873년 『지옥에서 보낸 한 철 Une saison en enfer』 끝에서 두번째 시인 「아침 Matin」에 나타난다.

“똑같은 사막에서, 똑같은 밤에, 인생의 왕자들과 저 세명의 동방박사들, 마음과 영혼과 정신은 동요하지 않는다. 언제 우리는 떠날 것인가? 모래언덕 너머, 저 산맥 너머, 새로운 노동의 탄생율, 새로운 예지를, 폭군과 악마의 도주를, 미신의 최후를 환영하기 위해, 그리고 - 누구보다도 먼저 - 지상의 크리스마스를 찬송하기 위해!”

이 글은 매우 아름다우며 또한 매우 신비롭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의 별을, 하나의 태어남을, 성탄을 기다리는 부단한 기다림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동양은 강렬한 부름의 용어이며 아마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용어이다.

배경은 이미 동양적인 '사막'이다. 랭보는 훨씬 뒤에 그 사막에 가 보게 된다. 랭보는 1880년 12월 13일 하라르에서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20일간 말을 타고 소말리 사막을 가로질러 이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을 알고 있었다. 4장 「나쁜 피 Mauvais sang」를 보면, "가자! 행진, 무거운 짐, 사막, 권태와 분노"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랭보의 삶이 방랑 생활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긴 하지만, 모호하고 심지어는 허망하기까지 한 희망에 의해 인도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막 속에서 랭보의 존재는 이루어진다.

가족에게 보낸 1881년 7월 2일자 편지에서 "나는 내륙에서 돌아왔다. 그곳에서 상당한 양의 마른 가죽을 샀다. 나는 지금 약간 열이 있다. 며칠내로 나는 유럽인들이 전혀 가보지 않은 지방으로 떠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내용도 이러한 이동성 *mobilité* 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거기서 '사막'은 '행진'에 결부되고, 수평선에는 '언덕과 산맥의 저 너머'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양은 랭보에게 있어, 순수하게 동양적인 자신의 존재 이전에 이미 내면적으로 체험된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격세유전인 것 같다. 그가 자신의 피와 종족의 피를 뒤섞어 놓을 때, 그는 자신의 선조, 십자군의 과거를 재발견한다.

“나는 교회의 딸딸인 프랑스의 역사를 기억한다. 평민이지만 나도 성지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머리 속에는 수아브지방의 평원에 풀린 길들, 비잔티움의 경관, 솔림프의 성벽이 있다. 마리아의 승배, 십자가에 못박힌 자에 대한 연민이 내 내부의 수많은 세속적인 선경 仙境들 중에서 깨어 난

다.

「나쁜 피」

랭보의 어머니인 비탈리 귀프 Vitalie Cuif의 오빠인 장-샤를르 귀프 Jean-Charles Cuif는 '아프리카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그는 1841년 아프리카 주둔군에 참가했다가 1854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해 12월 3일에 죽었다 (아르튀르 랭보는 10월 20일에 태어났다). 랭보는 그의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고, 『착색 판화집 Illuminations』의 「어린시절 2 Enfance II」의 묘사 속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송장들에 대한 일련의 환기 속에서 어렵פות하게나마 외삼촌에 대한 그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있다.

장미나무 뒤에 있는 죽은 소녀, 바로 그녀이다. - 살해된 젊은 어머니가 층계를 내려온다. - 삼촌형의 사륜마차는 모래 위에서 외친다. - 동생 (그는 인도에 있다!)은 석양을 앞에 두고 붉은 카네이션 목초지에 있다. - 정향 꽃이 피는 성벽 속에 끈계 매장된 노인들 - 「어린시절 2」

랭보는 그의 아버지인 프레데릭 Frédéric 랭보 선장에 대해 한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1814년에 태어나 18세에 자원입대하여 1841년 4월 13일에 육군소위로서 알제리로 가는 배를 탔다. 그는 틀렘센 Tlemcen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보병 소총부대'의 일원이 되었다가 1845년 7월에 아랍사무국에 배속되었고 1847년 6월에는 모로코국경 부근에 있는 세브두 Sebdu의 아랍사무소장이 되었다. 「대홍수 후에 Après le Déluge」를 보면 알제리 전쟁에서 남은 것은 김이나는 냉커피이다. 프레데릭 랭보는 1850년 6월 26일에 프랑스로 돌아왔고, 제 47보병 연대는 아르덴느 Ardennes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1852년말 샤를르빌 Charleville에서 비탈리 귀프를 만났다. 프레데릭 주니어 Frédéric junior와 아르튀르가 태어난 후 그는 동양으로 떠났다. 그는 1855년 5월에 크림에 Crimée 행 제노비호를 타고가 세바스토폴 Sébastopol 지역에 정착했다. 랭보 부부는 1860년에 헤어졌다.

(...) 슬프도다, 그는 마치
 길위에서 헤어지는 수많은 하얀 천사들처럼,
 산 저너머로 멀어진다. 그녀는 아주 차갑고
 우울하게 서있다. 달려간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

「기억 Mémoire」의 이 구절은 부모의 이혼을 은밀하게 암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가 정성들여 주석을 달았던 코란에 대한 추억은 아르튀르의 기억 어두운 곳에 남아 있었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불가능 L'impossible」이란 시에서는 '절충적인 예지가 담긴' 코란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우리는 랭보가 1883년 10월 7일 아셋트 출판사에 코란을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랭보의 어린시절의 독서체험을 되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출판되지 않은 작품들 (군 시절의 편지, 군사용변소론, 병서 兵書)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들라망슈 Delamanche의 『아틀라스 L'Atlas』(1864년), 라싸 Rassat 학원 시절에 그가 모았던 수상작품들 중의 하나인 메인 레이드 Mayne Reid의 『사막거주 L'habitation du désert』, 그리고 로빈슨 시리즈 등은 볼 수 있었다. 거기서 만들어진 환상에서부터 「일곱살의 시인들 Les poètes de sept ans」이라는 시가 자양을 얻게 된다 (1871년 5월 26일).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사막에 대한 몽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살에, 그는 거대한 사막에서의 삶에 대한 소설을 썼다.
 그곳에는 황홀한 자유와,
 산림과 태양들과, 강기슭과 대초원들이 빛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어린시절과 청년기의 도피의 몽상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감각 Sensation」(1870년 3월)에서부터, 그 도피는 '여름날의 푸른 저녁들'을 통한 태양이 비치는 자연 속으로의 도피였다. 학창시절의 추억으로부터 길러진 이런 몽상은 「Credo in unam」(이 시는 「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라는 제

목으로, 1870년 3월, 드므니 Demeny 선집에 실리게 된다) 의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적이고 동양적인 고대로 향한다.

나는 대지의 여신 시벨르 Cybèle 시대를 그리워하노라.
 거대하고 아름다운 몸을 거대한 청동 수레에 싣고
 찬란한 도시들 위를 돌아다녔다고 일컬어지도다.
 그녀의 두 가슴은 무한한 생명의
 순수한 흐름을 광대함 속에 부어넣는다.

이것은 사막에 대한 몽상이며 동시에 대홍수의 비옥함에 대한 몽상이기도 하다. (이 몽상은 「민주주의 Démocratie」에 나오는 “상스럽고 향락에 잠긴 고장 pays poivrés et détremés”이라는 구절에서 다시 보인다)

“그는 사랑스런 대초원을 꿈꾸었다. 그 곳에는 빛나는 물결,
 좋은 향기와 황금 솜털이
 고요히 움직이며 비상한다!
 (…)
 그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소설을 읽었다.
 황토색의 무거운 하늘과 물에 잠긴 산림으로 가득찬,
 육체의 꽃에서부터 펼쳐진 항성의 숲에까지 가득한
 현기증, 흐름, 패주 그리고 연민.”

「일곱살의 시인들」

분명히 이 몽상 속에는 1871년에 「잔느 마리의 손 Les Mains de Jeanne Marie」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시 「꼬핀의 전사 Communard」에서 문제가 될 “아시아에 대한 꿈”이 보인다. 그러나 이 꿈은, 전사의 손을 잡는 꿈을 연상시키는 아래의 식구 속에서는 시대에 뒤진 낡은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 어떤 꿈이 기지개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는가?
 아시아의 놀라운 꿈을,
 캬가바르 Kenghavars와 시온 Sions의 꿈을.”

이 새로운 꿈을 여기서 페르시아의 도시 Kenghavars와 유대 시온의 마을로 표상되고 있는 아시아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그 두 도시의 결합 또한 약간은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어린이의 꿈은 이제 주의를 요하는 변화에 의해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변화는 파리 꼬핀과 관계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랭보는 분명히 파리 꼬핀 시기에 파리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면적으로 그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시적 변화와 일치를 이루며, 이 변화는 견자 voyant의 탄생을 낳는다.

이제 매우 흥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 한편으로 꼬핀의 꿈을 동양의 꿈이 넘어서게 된다(이것은 「잔느 마리의 손」에서 볼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루시 voyance의 상태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되찾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는 모순의 시기이다.

파리 꼬핀이 끝난 후, 랭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종교에 반발하며, 동양의 신인 그리스도에게 반항한다. 「저녁 기도 Oraison du soir」에는 그에 대한 조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삼나무 Cèdes와 히슴 hysopes의 신처럼 부드럽게,
 나는 갈색 하늘을 향해 매우 높게 매우 멀리 오줌을 본다.
 거대한 해바라기의 수궁을 가지고.”
 (역주 : 성서적 이미지로 삼나무는 장대한 것을 히슴은 작은 것을 상징한다)

「정의로운 인간 L'Homme juste」는 “감람산의 울보”인 그리스도에게 반항하여 쓰여졌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랭보는 반복음서적인 산문을 쓰려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 편 정도가 남아있고 「지옥에서 보낸 한 철」에서 계속 나타난다. 이 책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은 확실해진다. 그것은 세례에 대한 반감, 특히 「지옥의 밤 Nuit de

l'enfer」에서 그리스도를 희화화시킨 인물인 동양의 마술사의 등장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동시에 랭보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된다.

랭보는 현실세계에 대해 반항한다. 이것은 1871년 5월 13일과 15일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견자로서의 모험이다. 랭보는 이제 그가 「언어의 연금술 Alchimie du verbe」 속에서 단순한 환각이라 불렀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의 대상을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제멋대로 대치하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단순한 환각에 익숙해져있다. 나는 아주 분명히 공장 대신 회교사원을 본다.

단순한 환각의 첫번째 예가 동양적이라는 것, 즉 산업화된 서양을 종교적인 동양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환각은 파국적인 과정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결국 종결짓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는 「착란 2 Délire II」의 마지막 노래에서 '계절'과 '墟들'에게 분명히 작별을 고한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작별 Adieu」은 동양적인 마술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일치한다.

“나는! 스스로 마술사니 천사니 말을 하고, 모든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는 찾아야할 의무와 꺼안기에는 너무나 거친 현실를 지닌 채 대지로 향한다. 농부여!”

또 다시 그는 도피를 생각한다. “나는 유럽을 떠난다” (「나쁜 피」). “나는 도망간다” (「불가능」). 이 점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불가능」이라 이름붙여진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한 부분이다.

어떤 도피인가? 그는 약간의 조소를 지닌 채 과거의 도피를, 어린 시절의 도피를 생각한다. 1870년 가을, 벨기에를 가로질러 갔던 가출 혹은 단순한 도피에의 환상이 그것이다. 그는 지옥에서, 지상이라는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불가능'이라는 걸 이해한다. 진정한 선민 選民의 결으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오로지 "거짓 선민", "심술궂고 유쾌한 사람들", 랭보가 다른 곳에서 강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 - 이 세계의 권력자들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서양의 습지"라고 부른 곳을 빠져나가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지혜의 고장"인 동양으로 가고자 했다.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지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서양은 지옥의 강과 같은 것이며, 동양과 부합하는 듯한 상젤리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빠져 나와야만 한다. 동양은 하나의 공간이며, 또한 하나의 시간대이다. 그것은 특히 역사의 시초에 위치하고 있다. (랑보는 "동양의 종말 la fin de l'Orient"이라는 말을 쓴다.)

동양으로의 도피라는 이 욕망은 일련의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초창자들과 나누는 일종의 연극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킨다.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에덴에 대해 말하고 싶어합니다. 동양인의 역사에서 당신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동양은 지상의 낙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 낙원은 영원히 잃어버린 낙원이다. 그것은 역사 이전에 있으며, 심지어 탈역사적이다. 그 것에 대한 대답은 신중한 동시에 조소하는 듯이 보인다. 신중하다는 것은 : "맞아요, 내가 꿈꾼 것은 에덴입니다"라는 것이고 조소적이라는 것은 : "내 꿈에서 원시부족의 이 순수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것이다. 이 순수함의 꿈은 꿈의 순수함에 비해 불충분하다.

철학자들. 랭보는 이미 그를 서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철학의 범주들 (빛, 형태, 운동등)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이야기한 바 있다. 철학자들도 서양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는데는 정신의 노력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를 서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쓴다. 또 그들은 순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돌아가는 회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랭보는 이런 철학적인 궤변 속에서 서양적인 궤변만을 보고자 했다. "철학자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서양에 길들어 있

소.”

이런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랭보의 동양이란 모든 교회와 모든 철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서부터, 「불가능」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선전포고가 나오며, 모든 논증, 모든 증거에 대한 거부가 나온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거부, 과거 속으로 “태초의 모국 母國”으로 퇴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최고의 적은 아마도 그의 내부에 있을 것이다. 연극은 내면의 연극이 되고, 나중에 발레리가 “정신의 연극”이라 부르게 될 것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하나의 막간 (“두꾼짜리 이성 deux sous de raison.” 이 문장은 모호하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전형적으로 서양적이며, 니체가 말했던 “노망한 늙은 여자”이다.), 하나의 막(정신의 폭정. “영혼은 권위이다. 그는 내가 서양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대로 끝맺기 위해서는 그를 침묵시켜야 할 것이다.”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이다.), 하나의 대단원(정신의 수면. 정신이 잠들면 잘 될게 없다. 그가 깨어난다면, 그는 회한만을 준다.)이 구별된다. 「불가능」은 일련의 가혹한 가설로 완성되는데, 그 가설을 증명시키는 것으로 실망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동양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동양이다. 거기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 다음으로 「착색 판화집」을 다루면서, 우리의 현재의 지적인 상황에서, 랭보의 연대기 문제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정하고 있는 듯이 보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몇 개의 연속성을 나타내 보이려 하는데, 그것들 중의 하나는, 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 ‘단절의 연속성 la continuité de la rupture’이 될 것이다.

정령 Génie은 동양적인 신화 속의 인물이며, 「천일야화」에 특히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정령 또한 랭보적인 인물이다. 그것은 이미 1871년의 시 「자비로운 자매들 Les Soeurs de charité」에서 발견되는데, 그 시에서 여인은, 죽음을 향해 내뿜는, 지극히 보들레르적인 마

지막 호소를 앞에 둔 열정적인 정의의 神이나 초록의 뮤즈처럼, 거부 당한다. 사형수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한 사람에 대한 최초의 암시는 그를 동양적인 정령의 시선 아래 위치시킨다.

눈이 불타오르는 그 젊은이, 갈색 피부,
그리고, 이마는 구리로 덮인 채, 페르시아에서
경배하는 달 아래, 이름모를 정령이 갖게 될
발가벗겨지게 될 스무살의 아름다운 육체

이런 동양적인 비유는 베를렌이 랭보와 헤어진 후 랭보가 그에게 행사했던 매력을 환기하며 쓴 아름다운 시 「Crimen amoris」에서 다시 발견될 것이다.

비단과 금으로 된 궁전에서, 에크바탄느 Ecbatane 속에,
아름다운 악마들, 젊은 사탄들이
회교음악소리에 따라
일곱가지 죄악을 가진 오감을 무시한다.

(…)

이 모든 나쁜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는
그의 花冠 아래에서 열여섯살이 되었다.
목걸이와 장식들 위에 팔짱을 끼고,
눈에는 불꽃과 울음이 가득한 채, 꿈을 꾸다.

이런 비유는 「착색판화집」 중에서 「이야기 Conte」라는 매우 신비한 산문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 제목부터가 「천일야화」나 윌리엄 벡포드 William Beckford의 「바텍 Vathek」같은 동양의 이야기를 참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필경 만족하고 있을, 그러나 그의 내부에 절대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동양의 왕자는 “진리를, 욕망과 본질적인 만족의 시간을 보기를 원했다.” 그는 이 절대를 파괴 속에서 찾는다 : 여인들, 동물 형상의 사치품들, 궁전들, 군중.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왕자는 그에게 절대적인 사랑의 기회를 주는

정령을 만난다. 이 절대는 동반 죽음으로써만 실현된다. 그러나 파괴의 악마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은 이번에는 시인 자신인 듯하다. “도덕”은 과거의 우화를 의문시한다 .

그러나, 왕자는 그의 궁궐에서 보통 죽는 나이에 죽었도다.
 왕자는 정령이었도다. 정령은 왕자였도다.
 박식한 음악은 우리 욕망을 그리워한다.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좀더 박식한 음악가가 되어야하듯이, 우리는 동양의 이야기가 붕괴되는 것을 보는 듯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오로지 극도의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죽음 속에서까지 내가 내 자아와 만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착색판화집』의 맨 끝에 놓여져 있는 「정령」이라는 산문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는 「자비로운 자매들」 이후 분명하게 일기 시작한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 정령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다. 정령 자신이 모든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새로운 사랑”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령이 발산하는 수많은 매혹 속에 있다.

그는 애정이며 현시이니(…)
 (…) 그는 애정이며 미래이며, 힘이고 사랑이어라(…)
 그는 사랑이어라 (…)

정령은 왕자가 꿈꾸는 절대에 이르도록 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총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선으로 있는 힘을 다해 따르고자 하는 아득히 멀어져가는 절대이다. 정령이 사랑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이 달아남 fuite 에 의해서, 이 본질적인 이동성에 의해서이다.

다양한 삶이라는 동양적인 테마로 『지옥에서 보낸 한 철』에서 『착색판화집』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연속성을 세울 수 있다. 「언어의 연금술」에서, 착란은 다양한 삶의 환각 위에서 절정에 달한다 : “내

생각으로는 몇개의 다른 삶들이 각각의 존재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윤희에 대한 힌두교적인 믿음은 내가 지금 짧게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세 편의 연작 산문시인 「삶 Vies」에서 보다 분명히 그 성격을 드러낸다.

「삶 I Vies I」은 인도를 그 배경으로 하여 전생에 대한 꿈을 보여주고 있다 (사원·브라만·격언들 - 즉 브라만이 그 뜻을 전해주어야 하는 경전인 베다). 그 뒤를 이어 꿈의 변화보다는 하나의 종말에 부합하는 단절과 큰 놀라움이 온다. 모든 것은, **공의** 상태에서의 창조, 마치 「퍼레이드 Parade」에서처럼, “**無**”의 창조와 함께, 연극 무대의 생명의 감속 減速이라는 유일한 근원으로 귀결된다.

「삶 2 Vies II」에서 생명의 연금술의 결과는 그것의 한 상태에서 파악된다 (“깨끗한 하늘의 바람찬 들판에 서 있는 신사”). 이것은 바위인가?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쓰여있는 상태인가? 이 두 경우, 회의주의와 광기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가 보인다.

「삶 3 Vies III」의 첫번째 문장은 유년기의 도피에 대한 환상을 어렵풋하게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삶은 책에서 습득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절정은 동양적인 삶이다.

온통 동양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나는 나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했고 나의 유명한 피난처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린다. 단념이, 이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감정이 표현된다. “나는 실제로 무덤 저편에 있으며, 일용식품은 아무 것도 없다.”

「착색판화집」의 곳곳에서 다른 동양적인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왕가 Royauté」의 “종려나무 정원”, 「도시 I Villes I」에 보이는 “꿈의 레바논”과 “바그다드의 大路”,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Métropolitain」의 사마리아나 다마스쿠스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장면들 Scènes」에는 연극에서 가능한 장면들이 모두 나타난 후 이런 말이 나온다 : “플루트와 북의 반주에 맞춰, 서정적인 무대들은 현대적

인 클럽의 살롱들 혹은 고대 동양의 거실들 주위의 천장 아래 마련된 구석 방으로 기울어진다.”

이 모든 잔해는 보들레르가 미학적 잡동사니라고 부르는 것들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진정으로 동양적인 잡동사니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작별」을 향해 나아갔듯이, 『착색판화집』은 우리를 「특매 Solde」로 이끈다. 시적 창조 자체가 그렇듯이, 고갈되지 않는 전체 속에서, 모든 것은 팔려야 한다. 랭보도 “우리의 감각을 드러내주는 유일한 기회”를 팔고자 했다. 이 표현은 「정령」의 “꿈꾸어진 일탈 *dégagement rêvé*”을 생각나게 한다. 이 표현은 랭보에게 있어 『착색판화집』의 동양을 보다 정확히 정의해 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약속의 장소는 아니다. 『동방의 시』에서, 루르크에 맞서는 그리스를 편들고 있는 위고의 태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동양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암시를 들추어 낼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지의 총체이며 일시적인 계시의 총체이다. 랭보는 그 중 하나에 머물러 그것을 탐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착색판화집』에, 심지어 「삶 1」에는 동양은 없다. 그러나 각각의 이미지들은 일탈의 꿈을 암시한다. 서양 밖으로의 일탈 (「불가능성」), 무희(舞姬)로부터의 일탈(「무희 l'almée」), 삶으로부터의 일탈 (「이야기」), 유일한 삶으로부터의 일탈 (「삶」), 그리고 1871년부터 랭보가 절망적으로 “타인”으로 대치시키고자 시도했던 “나 moi”로부터의 일탈.

랭보의 삶에서 동양의 시기는 일탈의 시기인 동시에 참여의 시기이다. 그는 마침내 서양의 존재에서 벗어나 - 가정의 숙박, 샤를르빌의 차가웠던 겨울들, 공부, 군복무의 위협 -, 상인인 동시에 탐험가라는 활동적인 직업에 뛰어들었다.

동양으로 떠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1876년 4월에 비엔나에 머물렀고 1877년 9월에는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잘못 출발하기도 했다). 극동 - 나는 超 동양 *ultra-orientale* 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 으로의 파견 원정도 있었다 (1876년 5월에, 네덜란드 식민지 군에 참가하여 바타비아 Batavia로 떠났다가 탈영한다). 마침내 이 자유스러운 사내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 키프러스 (1878-1880)

의 아덴 Aden, 바르데 Bardey 회사의 책임자가 된 그는 1880년 8월부터 때로는 아덴에서, 때로는 하라르의 지점에서 일하게 된다.

내가 여기서 랭보가 동양에서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을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은 에니드 스타르키 Enid Starkie, 마리오 마투찌 Mario Matucci, 알랭 보레르 Alain Borer의 책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대략 랭보가 죽기 전 마지막 십년과 일치하는 랭보의 삶의 이 시기에 있어, 뚜렷이 구별되는 두 시기를 드러내 보이 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양에 대한 마지막 유혹이었고 마지막 꿈이었던 궁극적인 강박관념을 찾아보고자 한다.

랭보가 동양에서 살았던 시기를 둘로 나누어 주는 중심적인 사건은 1884년 초, 마제란 Mazeran, 비아네 Vianney, 바르데 Bardey 회사의 파산이다. 이때까지 랭보는 이 수출입상의 고용인이었으며 그는 그 생활에 대해 편지 속에서 몇번 묘사하고 있다.

1884년 이후, 그는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꿈꾼다. 분명히 그는 1884년 6월 19일, 앞서 망한 회사 뒤를 이어 바르데 형제가 다시 세운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을 맺긴 했지만, 그는 이제 회사에 갇혀 모범적인 고용인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스스로 회사를 차리려고도 했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인도나, 북베트남 지방, 파나마로, 더 멀리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무기력감이 그를 그 불모의 땅에 붙들어 두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랭보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계획 때문에 그는 1885년 10월에 “그를 영원히 명칭하게 만들려고 한 구두쇠”인 바르데 형제의 회사와 관계를 끊는다. 이 새로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수천 정의 유럽의 총이 내게 도착했다. 나는 대상을 구성하
여 이 물건을 싣고 코아의 왕 메네리크에게로 갈 것이다.

이제 실제로는 우울하고 에피소드에 가까운 이야기인 대상 라부튀 Labtut의 모험이 시작된다. 코아의 중개인인 삐에르 라부튀 Pierre Labtut는 아비시니 Abyssinie에서 랭보와 계약을 맺고 그의 중고무기

대상을 코아의 왕인 메레니크 2세에게 안내하는 일을 맡겼다. 메레니크 2세는 그의 군주인 장 뒤 티그레 Jean du Tigré 황제와 전쟁 중에 있었다. 그러나 라브뤼의 대상은 필요한 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꿈작업이 타주라 Tadjoura 바닷가에 남는다. 겨우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배반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라브뤼의 죽음, 메레니크의 계략, 채권자들, 그리고 대상의 사업 청산을 진짜 파국으로 만드는 여러 일들이, 랭보가 1891년 결정적인 출발을 하기 전날 밤까지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대상 라브뤼의 모험은 랭보에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했다. 코아에서 아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갈 때 지나갔던 당칼리의 나쁜 길 대신, 하라르를 거쳐 왔다. 그는 그 길이 진정한 상업로이며 미래의 무역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덴-하라르-코아를 잇는 축이 그려졌으며 그것은 세자르 티앙 César Tian-랑보-알프레드 일그 Alfred Ilg의 삼각 구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물론 티앙이 그쪽의 유일한 상대자는 아니었다. 제이라에는 소티로 Sotiro도 있었고 바르데와도 몇번의 거래가 있었다). 랭보는 그 자신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자신을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다.

수입된 상품들을 (무기, 옷감, 냄비, 실 대신에) 교환하면서 - 메레니크가 짐짓 거절하는 척 했지만 - 귀중한 일차 원료를 얻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랭보가 서투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전에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저주받은 자는 “난 금을 가질거야.”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1890년이라면 랭보는 오히려 “난 상아를 가질거야”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제 그가 주목 fixation 하는 것이 상아이기 때문이다. 이 꿈은 그에게 있어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이 꿈은 1881년 5월 4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난다.

커피수확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곧 미지의 지방으로 거래하기 이 마을 하라르를 떠날 계획이다. 며칠 노정의 거리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곳은 상아의 땅이다. 나는 그곳에서 성공하려 하지만 그 고장은 냉혹할 것이다.

말 한마리를 사서 떠나려 한다.

견자의 편지에서 “미지의 것에 이르다”는 표현이 “미지의 지방으로 거래하기”로 되었다. 미지의 것, 그것은 랭보를 사로잡고있는 상아이다. 어휘의 빈도수를 보면 1887년부터 그의 편지에서 이 상아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르세이유의 병원에서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이 꿈을 계속 좇는다. 랭보의 간호를 위해 거기 와 있던 이자벨 랭보는 1891년 10월 28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라르에서 아덴에 이르는 대상을 조직하는 랭보의 이상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죽기 전날 밤인 1891년 11월 9일, 이자벨은 랭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완성되지 못한 기이한 편지를 썼는데, 나는 거기서 랭보가 느낀 동양에의 유혹에 관한 마지막 표현을 볼 수 있다.

- 1개 : 상아 한개 뿐
- 1개 : 상아 두개
- 1개 : 상아 네개
- 1개 : 상아 두개

선생님,

귀하의 대금 지불 구좌에 나의 몫이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우편을 변경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떤 우편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피날 우편이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우편은 도처에 있지만, 나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불쌍한 인간으로 어느 것 한 가지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길가의 개라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피날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운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을 전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수에즈에 있고 싶습니다. 몇시에 배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되는 것이 새로운 대상 隊商이라면, 새로운 판매를 위해서든 아니면 새로운 매입의 결과이든, 그것은 순수한 상아를 파는 대상일 것이다. 또 그것이 새로운 청산이라 해도 재고품은 오직 상아만이 있는 것이다. 상아의 꿈은 여기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는 이제 랭보가, 해상 항로를 통해 동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취하기를 원한 채, 마비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아피날은 지도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이자벨이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 옮겨 적었을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단어는 “종말 fin”을 담고 있으며, 랭보에게 있어 동양을 향한 마지막 여행은 바로 이 종말을 향한 여행이었다.

랭보의 숭배자였던 시인 폴 끌로델은 “육망의 인간의 조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끌로델에게 있어서 『교환 L'Echange』의 루이 란느 Louis Laine, 『비단신 Le Soulier satin』의 로드리그 Rodrigue, 또는 크리스토프 콜롬브 Christophe Colombe가 지향한 방향은 서방 西方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로드리그는 모다고르 Modagor 앞으로, 또 일본으로 간다. 왜 동양은 그 육망의 인간의 조국이 될 수 없었을까? 랭보는 분명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죽을 때까지 동양에 대한 육망은 랭보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남아 있었다. 동양은 그에게 본질적인 목마름을 가져다 주었다.

<손정훈 역>